

‘콘텐츠 없고 발길 뚝’ 광주 김치타운… 예산만 낭비

매년 운영비 17억 투입 불구 홍보부족, 접근·편의성 불편 김치축제 장소 상무공원 변경 활성화조차 못하고 제동걸려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시급’

“홍보가 잘 안돼 이곳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구경거리가 별로 없어서 아쉽습니다.”

국내 유일의 김치 복합 테마파크로 조성된 광주김치타운이 시설 노후와 콘텐츠 부족으로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이곳에서 열렸던 광주 김치축제도 장소가 변경되는 탓에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찾은 광주 남구에 위치한 광주김치타운은 텅 비어 적막이 흘렀다.

매년 새로운 전시로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했던 기획전시실은 노후된 시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전시가 중단됐으며 보수와 개편 공사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물관은 관람객이 없어 작품에서 나오는 영상 소리만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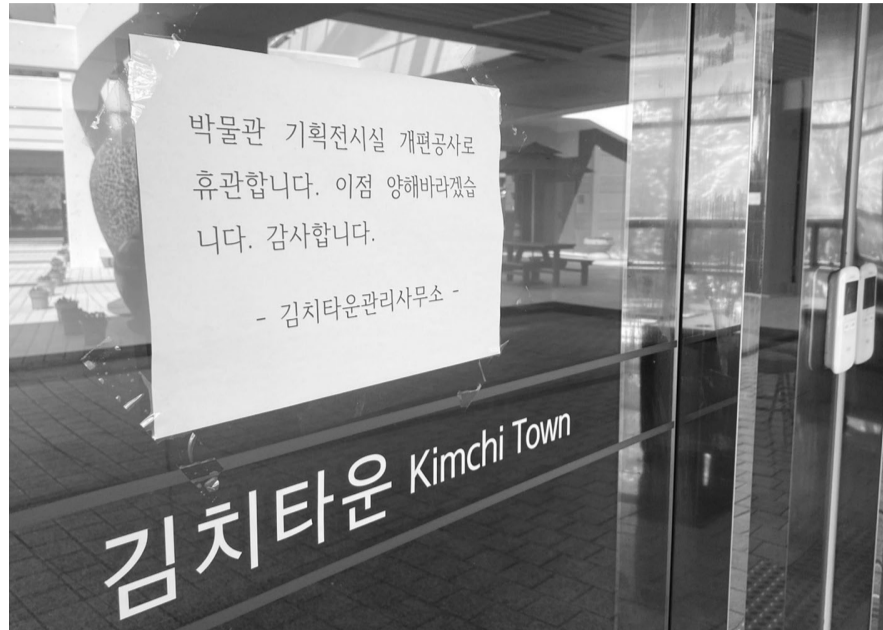
광주시가 김치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치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해 2010년 건립한 광주김치타운은 김치체험관, 홍보관, 박물관, 김치 가공 공장 등을 갖춘 김치 복합 테마파크로 조성됐다.

광주시는 국비 201억, 시비 196억, 구비 30억원 등 총 426원을 들여 남구 입암동에 김치타운을 건립했으며 매년 유지비용으로 17억원이 소모되고 있다.

광주시의 김치중추도시 선언 후 김치타운에서 활발한 김치 체험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되지 않고 박물관에 불거리와 체험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에서 가족들과 놀러 왔다는 운모(38)씨는 “길을 지나다 우연히 김치타운이 있다는 걸 알고 처음 오게됐다”며 “실내에서 아이들과 즐길 거리가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워낙 시설이 오래돼서 자주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근에 거주한다는 임정현(23)씨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도 행사도 부족하고 구경할 만한 것도 부족해 거의 온 적이 없다”며 “주변 지인들은 광주에 김치타운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



25일 광주 남구 광주김치타운 1층 기획전시실이 개편 공사로 인해 전시가 중단된 채 비어 있다.

다. 시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이나 행사를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광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김치축제 장소도 변경되면서 김치타운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김치축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부터 김치타운에서 김치축제가 진행됐지만 접근성과 편의성 문제로 작년부터 상무시민공원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김치축제 30주년을 맞아 작년에 처음으로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했는데, 김치타운에서 진행한 축제 대비 2배가량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올해도 상무시민공원을 축

제 장소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 김치타운은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통 발효 식품 업체와 협력해 김치타운 시설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고 있다.

노형근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김치체험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자주 참여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형문화재를 초빙해 제철·잔치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과 간단한 활동으로 전통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한식 디저트 만들기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기존에 있던 기획 전시실을 새로운 콘텐츠 운영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기획 전시실을 박물관으로 옮겨 전통 발효 식품 업체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기획 전시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검경브로커에 금품 받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실형

검경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57·6급)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다.

A 수사관은 지난 2020~2021년께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탁 모씨(45)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

A 수사관은 수사 전부터 재판 중반까지 모든 공소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론 과정에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성씨를 통해 탁씨가 고소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동향 공유와 법률 상담, 진술서 작성·편집 등 과정을 부당하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탁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동료 수사관 백모(49)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도 브로커 성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A 수사관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받은 접대의 대가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는 성격이 포함돼 있다.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해 수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공무원으로 성실이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수질오염 방제훈련

북구청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 직원들이 25일 광주 북구 옹동동 첨단대교 인근 영산강 일원에서 열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 방제훈련에서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응급방제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술 그만 마셔” 지적에 가족에 흥기 휘두른 20대 검거

만취 상태로 가족에게 흥기를 휘두른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남구 송하동 자신의 집에서 흥기를 휘둘러 여동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에게 달려들려는 A씨를 막으려

다 손을 다친 B씨는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가족들이 잤을 음주를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오토바이 수리하러 가던 무면허 10대 붙잡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2시께 남구 봉선동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A(15)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번호판 없이 남구 일대를 주행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

에 붙잡혔다.

A씨는 “중고 거러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되팔기 위해 수리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음주 운전이나 헬멧 미착용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나다운 수습기자

광주교육청, 군 부대 행사 논란에 프로그램 일부 수정

시민단체서 부적절 지적하자 지역 여론 반영해 대체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지역주민 및 군과 함께 하는 부대개방행사 어린이날 프로그램이 시민단체의 비판에 휩싸이자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은 “내달 2일 제31보병사단(항동부대)에서 개최하는 어린이 대상 부대개방행사를 어린이의 흥미와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추진하겠다”며 “최근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서바이벌 게임 등 일부 프로그램을 어린이 정서에 맞게 조정해, 형·오빠의 부대 생활 듣기, 군악대 버스킹 공연 등으로 대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가 논평을 내어 “시대

착오적 어린이 군사훈련을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군가를 부르고 총을 쏘는 체험은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전쟁과 폭력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사립으로 교화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의 달에, 군부대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라면서 “교육청은 어린이들에게 군부대 체험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사의 목적은 군인의 삶을 이해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며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결코 전쟁을 미화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광주교육청은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은 모의사격 프로그램은 부대생활 듣기, 군가 부르기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인 캐리커처,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미니축구, 미니티볼 등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위한 풍성한 행사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지역 군부대를 민주·평화를 유지하는 수호자로 바라보는 동시에 호연지기를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